



## [패스파인더 시승여행] 60년대 마산의 문화와 예술을 되찾은 '창동예술촌'

모클팀기자

등록: 2018.06.21 08:29 수정: 2018.06.21 08:34



01

닛산의 대형 SUV이자 패밀리 SUV인 패스파인더를 시승하며 여행지를 찾아서 서울 근교가 아닌 한반도의 남쪽을 향했다.

그 동안 다녀보지 않았던 창원에는 어떤 매력이 있을지 궁금했고, 또 패스파인더가 창원 여행 속에서 어떤 주행 성능과 매력을 보여줄지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다. 저도와 창동예술촌 그리고 람사르 문화관을 목적지로 하고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했다.



02

또 다른 일정, 창동예술촌

창원의 도심을 다니던 중 흥미로운 지명을 보았다. 바로 '창동예술촌'이 그 주인공이었다.

이름을 보는 순간 창동예술촌이 어떤 곳일지, 또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지 의문이 들었다. 이에 내비게이션을 곧바로 가동하고 창동예술촌을 찾아 달려갔다. 창동예술촌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성동으로 마산 아구찜거리 인근에 있다.



03

창동예술촌은 옛마산 원도심권 (창동/오동동권역)의 잃어버린 상권기능을 재생시키기 위한 도시재생사업으로 50~60년대 문화·예술의 중심지였던 마산의 추억과 향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현재 거리의 구성은 문신예술골목 / 마산예술흔적골목 / 에콜드창동골목 등 총 세가지 테마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50여개의 입주 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며, 12개의 시설에서 체험 공방등이 마련되어 방문객을 맞는다.



04

예쁜 그림과 장식이 가득한 거리

창동예술촌을 거닐기 시작하니 곧바로 다른 시장 골목과 다른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색의 활용은 물론이고 다양한 캐릭터나 이미지를 통해 감각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있었다. 게다가 거리에 위치한 간판 마저도 다른 곳과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방문객을 환영하는 모습이었다.



05

조금 걷다보니 창동예술촌의 지도를 보며 삼삼오오 다니는 방문객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중에는 내국인 외에도 외국인의 비중이 높은 그룹도 있었고 어린 친구들부터 장년, 노년층의 사람들까지 다양한 모습과 방식으로 창동예술촌을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 덕분일까? 시장 골목이라는 장소에 상인들의 활력과 다른 또 다른 활력이 맴도는 것 같았다.



06

패스파인더를 두고 얼마나 다녔을까?

창동예술촌의 지도를 보면서 이곳저곳 다니는데 길을 잃은 것 같았다.

어떻게 해야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조금 더 걷기로 했다. 아직 예술촌 구역이 개발되고 또 형성되고 있는 과정이라 그런지 골목 하나 하나 그 분위기가 사뭇 다른 모습이었고, 또 골목 하나 지나면 그냥 평범한 평범한 시장 골목과 점포들이 줄지어 있는 모습이었다.



07

앞서 찍어둔 지도를 따라 벽화나 독특한 구성을 갖춘 외벽 등을 찾으며 시간을 보내며 창동예술촌이 조금씩 나아들었다. 추후 예술촌이 온전히 구현이 된다면 분명 창원의 이색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전주의 청년몰, TV 프로그램을 통해 다시 생기를 찾은 신흥시장 등과 같은 그런 장소가 될 것 같았다.



08

창동예술촌을 둘러본 후 자연스럽게 시장의 어귀로 나와 걷게 되었다.

제법 큰 규모의 상권가가 구성되었던 곳에 자리한 시장인 만큼 시장의 규모는 제법 큰 편이었다.

평일 오후 임에도 불구하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찾아 저마다의 목적에 따라 움직이는 모습이었다. 누군가는 찬거리를 사고 누군가는 옷을 사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창동예술촌을 찾는 이들에게도 이 시장이 있다는 것이 허기를 달래는 데에도 좋은 도움이 될 것 같아 보였다.



09

마산, 진해 그리고 창원의 통합 이슈 이후로는 그 존재가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던 창원을 둘러보는 일은 생각보다 즐겁고 흥미로웠다. 시간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창원의 매력적인 장소를 찾아 여유를 즐기는 것도 좋을 것 같다.

한국일보 모클팀 - 김학수 기자

---